

<2016년 7월 3일 주일말씀>

기도는 입력이다

삼위일체는 ‘사람이 쓰는 말’과
‘사람이 쓰는 존재물’로 말씀하고 보여 주신다

삼위일체는 ‘비유’를 들어 말씀하신다

본 문 마태복음 13장 13절

『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<비유>로 말하는 것은
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』

마태복음 13장 34-35절

『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<비유>로 말씀하시고,
<비유>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

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

내가 입을 열어 <비유>로 말하고

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해 줄 것입니다.

첫째, 기도는 ‘입력’ 이다.

둘째, 삼위일체는 ‘사람이 쓰는 말’ 과
‘사람이 쓰는 존재물’ 로 말씀하고 보여 주신다.

셋째, 삼위일체는 ‘비유’ 를 들어 말씀하신다. - 입니다.

- ◎ 먼저 ‘오늘 말씀을 받게 된 사연’ 을 이야기해 주면서,
왜 ‘기도는 입력’ 인지 말씀해 주겠습니다.

<말씀 시작 : 첫 번째 말씀>

- ◆ 자기 전에 ‘새벽기도’ 를 위해 기도했습니다.

꿈에 선명하게 보여
꼭 ‘새벽 제시간’ 에 잠에서 깨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.

그랬더니 **밤 11시**가 다 돼서 잤는데도
새벽 1시 전에 일어나 ‘제시간’ 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.

- ◆ 성령님께 ‘제시간’ 에 깨워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.

이때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“**기도는 입력이다.**” 하셨습니다.

- ◆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.

“네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꿈으로 깨워 달라고
<기도>로 ‘네 생각에 입력’ 해 놓고,
<기도>로 ‘나 성령의 생각에 입력’ 해 봤지?

그래서 기도 시간이 됐을 때,

<나 성령>도 행하고 <네 뇌>도 작동되어 꿈을 꾸고,
잠에서 깬 것이다.” (하셨습니다.)

- ◆ 성령님은 나를 깨워 주시기 위해
기도한 대로 ‘꿈’ 을 꾸게 하셨습니다.

꿈을 꾸면 ‘여러 가지 장면’ 이 보이지요?

그중에서 ‘끝에 끝 꿈’ 이나 ‘초점을 맞춰서 보여 준 꿈’ 이
<계시하시고자 하는 꿈>이라고 했습니다.

이날도 ‘새벽 마지막 꿈’ 을 통해 나를 깨워 주셨습니다.

- ◆ 선생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,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.

순간 누가 내 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.

순간 잠에서 깨어 눈을 떴습니다.

눈을 뜨고 쳐다보니

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여 착륙했고,

<여자 대통령>이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지나가면서

나를 살짝 스친 것이었습니다.

또 <섭리 사람들>이 있었는데,

짐을 들고 비행기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.

나도 얼른 일어나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.

그러면서 잠에서 깬고, 일어나 보니 새벽 1시 전이었습니다.

- ◆ <여자 대통령>은 ‘누구’ 를 비유해서 보여 주신 걸까요?
(대답 잠깐 들어 보고) 여러분도 금방 알겠지요?

<성령님>을 ‘여자 대통령’ 으로 비유해서 보여 주신 것입니다.

<성령님>은 ‘여성 신’ 이니,

여자로 나타나야 ‘성령님’ 인지 금방 알기 때문입니다.

- ◆ 기도한 대로 성령님이 ‘꿈’ 을 보여 주시며 깨워 주셨는데
그때 일어나지 않고 또 잤으면,
성령님과 ‘시간’ 도 같리고 ‘몸’ 도 같려
<혼자>서 행하게 됐을 것입니다.

기도한 대로 성령님이 ‘꿈’ 을 통해 깨워 주셨을 때

즉시 일어나서 기도했기에

성령님과 ‘시간’ 도 ‘몸’ 도 함께하며 <같이>이 행했습니다.

- ◆ 이날 ‘새벽 제시간 1시’ 에 일어나서 기도하며
성령님께 받은 말씀을 - 오늘 해 주겠습니다.

잘 가르쳐 줘야 이해하고, 알고, 깨닫고, 잘 행하기까지 합니다.

오늘도 이해되게 잘 가르쳐 주겠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첫째, <기도>는
‘자기 뇌와 마음과 생각’ 에 입력하는 것입니다.

둘째, <기도와 대화>는

‘삼위의 마음과 생각’ 에 입력하는 것입니다.

- ◆ 사람은 ‘자기 뇌와 생각에 입력되어 있는 것’ 을 행하는데,
‘입력된 것 중에서 원하는 것’ 을 행하게 됩니다.

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‘생각에 있는 것’ 을 행하십니다.

그러니 꼭 <자기 생각>에도, <삼위의 마음과 생각>에도
‘자기가 원하는 것을 입력’ 해 봐야겠지요?

고로 <기도와 대화>로 강하게 ‘입력’ 해 봐야 됩니다.

그래야 <자기>도 행하고, <삼위일체>도 합당하면 해 주십니다.

- ◆ 컴퓨터에도 글씨를 입력하면, 그 내용이 저장되어 출력됩니다.

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도
‘자기가 원하는 것, 구하는 것’ 을
<기도와 대화>로 입력시키고 인식시켜야 됩니다.

알겠습니까? (아멘!)

- ◆ 이 정도 교육이면, 모두 ‘입력의 말씀’ 을 깨달았지요?
이제 ‘성령의 감동’ 을 받고 행·해·야 됩니다! (아멘!)

<전환 : 두 번째 말씀>

◎ 이제 <두 번째 말씀>을 전해 주겠습니다.

이 말씀 속에 ‘두 가지 내용’ 이 들어 있습니다.

먼저 ‘한 가지’ 를 말씀하면서,

‘다음 말씀’ 도 연결해서 전해 주겠습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‘절대 신’ 으로서 ‘전지전능’ 하십니다.

이에 비해 인간은 ‘뇌의 생각과 지능’ 이 상상도 못 하게 낮습니다.

고로 삼위가 ‘어떤 말’ 을 해 주셔도 잘 못 알아듣고,

‘어떤 것’ 을 보여 주셔도 잘 모릅니다.

- ◆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<그 마음의 생각과 의견들>을 그때그때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고 보여 주십니다.

- ◆ 성령님께 물었습니다.

“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
어떻게 말씀하시고, 어떤 방법으로 하시기에

인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?”

- ◆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삼위일체는 ‘절대 신’ 이지만 <하늘나라 말>로 안 하고,

<사람들이 쓰는 말>로 말씀하고,

<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>을 이용하여 말씀하고 보여 주고,

<사람들이 쓰는 존재물>을 이용하여 말씀하고 보여 준다.

<사람이 쓰는 말>은 너희가 늘 쓰는 말이고,

<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인간이 쓰는 존재물>은

너희가 늘 쓰면서 보고 있으니,

그 방법으로 말하고 보여 주면

어려운 내용도 잘 이해하고 즉시 알고 깨닫게 된다.” (하셨습니다.)

- ◆ 발달된 사람들이 원시인들을 가르쳐 알게 할 때도
‘원시인들이 쓰는 말과 존재물’ 을 사용합니다.

이와 같이 <삼위일체>도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보여 주실 때,
‘사람들이 늘 쓰는 언어와 존재물’ 을 사용하십니다.

<하나님이 보낸 자>도 그러합니다.

- ◆ 세상에서 가장 빨리 이해가 잘되게 말해 주려면,
‘그들이 쓰는 말’ 로 말해 줘야 됩니다.

- ◆ 예수님 때도 “<비유>가 아니면 말할 수 없다.” 하셨습니다.

고로 <농사짓는 곳>에 가면

‘농사 비유’ 를 들어 말씀하며 깨닫게 하였고,

<고기 잡는 어부>에게는

‘어부가 접하는 바다와 그물 비유’ 를 들어 말씀하며 깨닫게 하였고,

<기존성을 가진 유대 종교인들>에게는

‘그들이 사용하는 종교의 단어’ 로 말씀하셨습니다.

- ◆ 그런데 오늘날 외식하는 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보면,
너무 ‘어려운 단어’ 을 사용하여 말을 합니다.

이는 **자기 지식, 자기 권위, 자기 간판**을 나타내려 함입니다.

그러니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고 잘 이해를 못 합니다.

- ◆ 섭리역사도 그러합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같이 말을 잘하고 잘 이해시켜 주려면,

‘상대가 쓰는 말’ 로 알아듣게 해 주고,

‘상대에게 해당되는 것’ 을 비유로 들어서 쉽게 말해 줘야 됩니다.

- ◆ 자기 권위와 간판을 나타내려고 ‘어려운 단어’를 쓰면,
듣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서 말이 끊어집니다.

<상대>를 파악하고

- ‘그에 맞는 말’을 쓰고

- ‘그에 맞는 것’을 비유로 들어서 ‘쉽게’ 이해시켜 주는 자가
최고로 말을 잘하고, 강의를 잘하고, 설교를 잘하는 자입니다.

<전환 : 세 번째 말씀>

◎ <두 번째 말씀>이 끝났습니다.

하나씩 핵심을 짧게 말씀해 주니, 이해가 잘되지요?

이제 <두 번째 말씀>과 연결시켜 <세 번째 말씀>을 전해 주겠습니다.

- ◆ 기도하며 성령님께 또 물었습니다.

“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
잘 알아들으라고 다 드러내서 ‘직접’ 말씀하시면 되는데,
그렇게 하시지 않고
왜 어렵게 ‘비유’를 들어 말씀하십니까?”

극히 조심하라 - 하는 계시를 주실 때도
꿈에 간단히 ‘계단에서 넘어지는 것’을 보여 주시면 되는데,
비유로 ‘돼지가 경사진 곳을 가다가 뒹구는 것’을 보여 주십니다.

그러니 ‘혹시 오늘 돼지고기 먹으려나?’ 궁금해하고,
혹은 ‘다른 것들’이 생각납니다.

왜 이렇게 어렵게 ‘비유’로 말씀하고 보여 주십니까?”

(하고 물었습니다.)

◆ 또 물었습니다.

“6000년 전 구약 때부터 <비유>를 썼으니,
이제는 그만 써도 되지 않습니까?

신이라 <말>로 안 하신다면,
<글>로 써서 보여 주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.

만일 계속 <비유>를 쓰시려면,
비유로 말할 때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지
<비유의 근본>을 교육해 주세요.” 했습니다.

◆ 이것에 대해 성령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.

이제 세 번째로 ‘비유의 근본’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.

가르쳐 주면 잘 듣고 - <비유>를 잘 깨닫고 행하겠습니까? (아멘.)

더욱 삼위와 주를 부르고 대화하며 사랑하겠습니까? (아멘.)

그리고 전할 것들은 전하며 가르쳐 주겠습니까? (아멘.)

그럼 말씀하겠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어떤 것을 두고 말할 때,
마치 수박 쪼개서 벌려 놓고 말하듯
다 드러내 놓고 ‘직접’ 말해도 안 된다.

그러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없고,
그러니 하고자 하는 말이 다 전달되지 않고,
듣는 너희도 깊이 깨닫지 못한다.

<비유>를 들어서 말하며 ‘그 이치’를 보여 줘야
듣는 너희가 섬세하게 보고 느끼고 인정한다.” (하셨습니다.)

- ◎ 그리고 <비유의 근본>에 대해 말씀하며 깨우쳐 주셨습니다.
성령의 말씀을 전해 줄게요. 잘 들어요. ‘성령의 교육’입니다.

◆ 가령 어떤 사람이

<성령의 생각>대로 하지 않고 <자기 주관>대로 한다 합시다.

이 사람은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.

그런데 그 사람에게 ‘직접’
왜 성령의 뜻대로 안 하냐고 말하면, 이해를 못 하고 오해합니다.

그리고 ‘나는 오직 성령의 뜻대로 살았는데...’ 하며
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(맞지요?)

◆ 그러나 성령님이 앞에 서 있고,

다른 사람들은 모두 성령님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

그중의 한 사람이 말을 안 듣고

혼자 다른 곳으로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것을

<비유>로 보여 주며 스스로 깨닫게 하면,

‘내가 저같이 성령의 생각대로 안 하고 내 맘대로 했구나.’

시인하며 깨닫게 됩니다.

◆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은

꿈에나 생시에나 ‘자신이 창조한 만물’ 을 보여 주면서
스스로 시인하고 깨닫게 하십니다.

<만물>을 ‘글’ 로 삼고,
<비유>로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, 혹은 은밀하게 보여 주십니다.

그러면서 ‘벌거벗은 것’ 까지 다 보여 주십니다.

이렇게 <비유>로 ‘본인이 그동안 행한 것들’ 을 보여 주며
핑계하지 못하도록 깨닫게 하십니다.

그러면 ‘직접 말이나 글’ 로 다 드러내 놓고 하는 것보다
핑계하지 못하고 훨씬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.

- ◆ <자기>는 ‘자기 얼굴’ 을 못 봅니다.
‘안 보이는 부분’ 은 못 봅니다.

반드시 ‘거울’ 이 있어야
거울에 비추어 ‘자기 얼굴과 안 보이는 부분’ 을 봅니다.

<비유>는 ‘거울’ 과 같습니다.

고로 <비유>로 말하면,
그 <비유>에 자기를 비춰서
‘자기 근본의 모습’ 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.

(믿습니까?)

- ◆ **합당하고 깊은 비유**는
 - <거울>과 같아서 ‘안 보이는 것’ 까지 볼 수 있고,
 - <X-ray>와 같아서 ‘속’ 까지 볼 수 있고,

- <투시경>과 같아서 ‘신혼골수’ 까지
오묘하게, 신비하게, 날카롭게, 예리하게
감동으로 깨닫게 해 줍니다.

◆ 직접적인 말이나 글로는 ‘표현의 한계’가 있습니다.

- 고로 100% 전달이 안 되고,
- 적나라하게 표현하지도 못하고,
- 은밀하게 표현하지도 못하고,
-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게 하지도 못합니다.

◆ 성령님은 이같이 가르쳐 주시며,

“그래서 하나님도 성자도 나 성령도 ‘비유’로 말한다.”

라고 하셨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게으르면,

<꿈>에 - 집에 비가 새는 것이나, 비가 오는 것이나,
땅이 질퍽거리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.

누가 <직접 말>로 “너 게으르다.” 하면

기분도 나쁘고 심정도 상하고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.

그렇다고 <글>이나 <편지>를 써서 “너 게으르다.” 하고
직접적으로 전하면 더 기분이 나쁘고 심정이 상할 뿐입니다.

꿈에나 생시에나 ‘그에 합당한 비유’를 들어 보여 줘야
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시인하고 인정하게 됩니다. (맞지요?)

- ◆ 구약 때도 <비유>를 들어 ‘메시아’를 나타냈습니다.

그러다 때가 되어 <구약 비유의 실체>인 ‘예수님’이 오셨고,
그를 직접 보게 하고, 그의 말을 직접 듣게 했습니다.

<아는 자>에게는 ‘비유’가 필요 없습니다.

<아는 자>에게는 ‘직접 말’을 해 줍니다.

고로 예수님은

<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들>에게는 ‘직접 말씀’하셨고,
<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>에게는 ‘비유로 말씀’하셨습니다.

- ◆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.

<신약 2000년 동안 비유로 말한 것들>이

이제 ‘실체’가 와서 직접 말하고 보니 ‘비유’가 필요 없습니다.

<실체를 모르는 자들>에게는 ‘은밀한 비밀’이기 때문에

독수리, 혹은 두꺼비, 큰바위얼굴 상징으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.

- ◆ 신약의 비유에

“제림주는 하늘 흰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.” 했습니다.

<흰 구름 비유의 실체>는 이것입니다.

새 시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무지를 벗어나

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정화되어

차원 높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‘하늘 신부’입니다.

<이 시대에 제일 첫 번째로 하늘 신부로 정화된 자>가

‘하나님이 보낸 구원자’가 되어

<성자>는 ‘그 육신’을 쓰고 다시 오십니다.

그리고 <성자와 시대 구원자>는

‘이 시대 말씀을 듣고 정화된 하늘 신부들’ 을 타고
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펴 나갑니다.

다시 말하면,
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는 보낸 자 인구름을 쓰고 나타나고,
<삼위가 보낸 구원자>는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인구름을 쓰고
나타납니다.

◆ 이는 ‘나무와 열매 같은 이치’ 입니다.

<열매>는 ‘나무’ 를 쓰고 나타나지,
<열매>만 따로 떨어져서 나타나지 않습니다.

또한 <꽃>은 ‘나무’ 를 쓰고 나타나지,
<꽃>만 따로 떨어져서 나타나지 않습니다.

이와 같이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는
‘보낸 자의 육신’ 을 쓰고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.

또한 <그 보낸 구원자>는
‘따르는 자들’ 을 타고 나타나 행합니다.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**만드신 것과 행하시는 것**을 보면
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.

그냥 직접 <말>로 하고 <글>로 하면, 못 느낍니다.

<비유>로 자세히 섬세히 보고 들어야

느끼고 알고, 감탄하고, 탄복하고, 기절초풍하고,
충격에 흥분되어 말씀의 감동으로 힘이 솟아나고,

뛰게 되고, 뛰다가 날게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직접 말하면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,
골 아프고, 오해도 하게 되고, 지루하고 재미도 없습니다.

<비유>는 연극하며 보여 주듯,

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을

만들고 엮어서 ‘영화 장면’ 같이 보여 줍니다.

고로 이해도 잘되고, 골도 안 아프고, 오해도 안 하고,

재미있고 신비하고, 섬세하게 이치를 알게 되고,

각자 자기 차원대로 스스로 풀고 깨닫게 됩니다.

- ◆ 고로 <꿈>과 <비유>에 대해 꼭 배우고, 잘 풀어야 됩니다.
꼭 기도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.

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보여 주지만,

그것으로 보여 줘야 ‘실체와 본질’을 깨닫고 제대로 행하게 됩니다.

<비유>는 항상 ‘이와 같이 이러하다.’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.

- ◆ <비유로 보여 줌>은

-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실체를 알리기 위함이고,
- 근본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,
- 스스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깨달아 행하게 하기 위함이고,
- 하나님의 비밀을 잘 간수하기 위함입니다.

- ◆ 예수님 때도 - 예수님을 반대하니 <비유>로 말했습니다.

그러나 <비유를 읽는 자>는

“저 비유는 ‘예수님’ 을 보고 한 말이다.” 하고 압니다.

- ◆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.

모르면 <비유>로 말합니다.

그러나 <비유를 읽는 자>는

무엇을 보고, 누구를 보고 말하는지 압니다.

또한 <극의 비밀>은 ‘비유’ 로 설교가 나옵니다.

그러면 각자 ‘자기 차원’ 대로 비유를 풀고 깨닫고 행하게 됩니다.

차원을 높이고, 삼위와 주와 생각이 일체 된 만큼

<주가 말하는 극의 비밀>을 풀고 깨닫습니다!

<말씀 마무리>

- ◆ 이제 <비유>를 ‘거울’ 로 쓰시며

잘 모르는 것, 잘 못 깨닫는 것, 잘 안 보이는 것을 비추어

잘 보고 깨닫고 시인하게 하신다는 것을

잘 이해하고 깨달았지요?

- ◆ 직접 말하면 ‘직설’ 이니,

오히려 기분이 상하고 심정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.

지나가는 개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

행인에게 맞고 절룩거리며 다니는 것을 보면,
<그와 같이 행한 자>는 깨닫게 됩니다.

<자기 행위>를 통해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.

이제 이만하면 ‘비유의 근본’에 대해 알았지요?

- ◆ 앞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꿈에도, 생시에도, 삼위와 대화할 때도,
민족이나 교회나 개인에게 전달할 것도, 상대에게 전달할 것도
악인과 악평자들에 대한 것도
은밀한 것들은 ‘비유’로 말씀하시니,
오늘 배운 대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.

<비유>로 해야 핑계대지 않고, 이유를 달지 않고,
자기가 모르는 것이나 못 보는 것들을 깨닫고 행합니다.

그러니 앞으로 삼위일체가 <비유>로 보여 주고 말씀하시면,

- 꼭 삼위와 주께 감사하다고 말하고,
- <비유>를 깨닫고 속 시원히~ 행하고,
- 삼위와 주를 더욱 사랑하며,
- <비유의 달인>이 되어 살기를 축원합니다!

- ◆ 기도는 ‘입력’이다.

삼위일체는 ‘사람이 쓰는 말’과
‘사람이 쓰는 존재물’로 말씀하고 보여 주신다.

삼위일체는 ‘비유’를 들어 말씀하신다. - 말씀 마쳤습니다.